

광주FC, 3-2 대역전극 닷 이야기

**‘암체 제주’에 毒 품고 싸웠다**

광주 FC는 18일 제주 유니타드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과 역전골을 잇달아 터트리며 3-2의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쳤다. 감격의 눈물과 환호로 가득했던 그라운드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비장했던 최만희 감독, “제주는 꼭 이기고 싶었다.”

경기가 끝난 후 최만희 감독은 승장이기 보다는 결전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했다.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경기,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제주가 신생팀 선수(박병주·허재원)를 데려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페어플레이가 아니었다. 꼭 이기겠다는 비장의 각오로 나섰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의 핵심이었던 박병주·허재원을 제주에 빼앗겼다. 신생팀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않는 제주는 반드시 꺾고 싶은 상대가 됐다.

1-2로 뒤지던 후반 30분 최 감독은 미드필드 박희성을 빼고 공격수 슈바를 투입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승부수였다.

▶침울했던 주장 김은선, “허재원과의 싸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던 후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주장 김은선과 제주 허재원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양팀 선수들이 한대 엉켰다.

고민과 갈등 끝에 광주를 떠난 허재원과 아쉬움으로 안방에서 옛 동료이자 형을 만난 김은선, 지난 겨울까지 함께 했던 두 사



최만희 감독

**수비의 핵심 박병주·허재원**

**제주에 빼앗겨 감정의 앙금**

**꼭 이기겠다는 비장의 각오**

**선수들 끝까지 포기않고 뛰어**

람은 적으로 만난 첫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주장 김은선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든 경기가 됐다.

김은선은 “경기 도중 자주 충돌했다. 이겼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 상대 선수들 만나 다름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

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충돌 이후 광주 선수단은 더 뽄뽄 뭉쳐 그라운드를 뛰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미안했던 신인왕 이승기, “더 뛰고 싶었는데 동료에게 미안했다.”

중원싸움의 핵심 전력이었던 이승기는 24분 만에 그라운드에서 퇴장했다. 경기가 시작될지 얼마 되지 않아 몸싸움 도중 발목을 다쳤다.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갔던 이승기는 다시 그라운드에 올랐지만 결국 전반 24분 주양파울로와 교체 됐다.

이승기는 “발목을 접질렀는데 전반 20분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서 빠질 수가 없었다. 계속 뛰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찍 빠져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 때문에 한발 더 뛰어야 했던 동료들에게 미안했던 이승기다.

▶피로 잇은 울림픽대포 김동섭, “시즌 첫 골, 값진 승리였다.”

예상과 달리 김동섭은 18일 스타팅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4일 카타르와의 올림픽 예선 최종전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만큼 박찬 경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동섭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터트리며 활활 날았다.

또 이승기가 부상으로 일찍 빠져면서 4일 만에 다시 풀타임을 뛰어야했지만 누구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김동섭은 “그라운드에 뛰는 시간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돼 끝까지 뛰면서 값진 승리를 얻었다”고 기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가 다시 돌아왔다”

광주 공격수 슈바가 18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뒤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문구를 보이며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를 적신 ‘딸바보’ 슈바의 눈물**

슈바가 울었다.

광주 FC의 신인 용병 슈바는 18일 제주 유니타드와의 경기가 끝난 후 한참을 그라운드에 엎드려 흐느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던 다른 남자의 눈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장을 돌며 동료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한 슈바는 락킴으로 향하던 도중 관중석에서 뛰어내려 온 딸을 꼭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슈바는 이날 후반 추가 시간 제주를 침몰시킨 역전골을 터트렸다. 언더셔츠에 쓴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문구를 보이며 골 세리머니를 한 슈바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렵게 다시 선 한국 무대에서 첫 골, 팀에 승리를 안겨준 천금같은 골에 꼭꼭 눌러뒀던 감정이 한번에 터졌다.

2006년 대전을 통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슈바는 전남을 거쳐 지난 시즌 포항에 정착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원하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구단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부끄러운 가장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외로운 싸움을 했다.

하지만 구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방출을 당했다. 6년을 뛰었던 K리그를 떠나야 할 위기 상황에서 광주는 슈바에게 선물 같은 곳이 됐다.

슈바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광주가 좋다. 편안한 느낌이다. 또 한국이 좋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곳이다.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 나라이고 딸도 7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말로 할 줄 아는 등



‘딸바보’ 슈바가 자신의 부활을 알린 골을 터트린 뒤 딸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전 역전 결승골 넣고**

**그라운드에 엎드려 흐느껴**

**“딸과 가족들 광주 좋아해”**

가족들도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다시 기회를 얻은 슈바는 옆에서 말릴 정도로 의욕적으로 몸을 만들었다. 그리고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시즌 두 번째 출전 만에 골을 넣었다. 그것도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 같은 골이었다.

슈바는 “지난주에 한국에 온 가족들이 경기장에서 내가 뛰는 것을 지켜봤다. 딸이 없었다면 내 골도 없었다. 딸은 내 친구이자 삶의 의미다”며 눈물의 소감을 밝혔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인물이 터트린 골은 K리그에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또 짐 샀다**

**무등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공사로**

**10일간 인천-서울-부산-서울 원정**

KIA 타이거즈 선수단은 지난 16일 캠프에서 돌아온 지 3일 만에 다시 짐을 꾸렸다.

59일간의 스프링캠프에 이어 다시 꾸러진 9박10일의 짐. 시범경기 원정경기 일정이 계속되면서 전국 투어에 나서게 됐다.

17-18일 문화에서 시범경기 첫 일정을 소화한 KIA는 20·21일에는 백선과 목동 경기를 치른다. 22·23일에는 사직으로 자리를 옮겨 롯데를 만나고, 24·25일에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라 잠실에서 두산과 대결을 갖는다.

10일 동안 광주-인천-서울-부산-서울-광주를 오가는 강행군이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천연잔디 교체 공사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경기를 소화할 수 없

다. 더 좋은 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위한 여쭌 수 없는 강행군인 셈이다.

KIA는 귀국 후 첫 훈련이 진행된 15일에도 광주일고 인조잔디 구장을 빌려서 훈련을 했다. 18일 문화 경기가 끝나고 광주 복귀 대신 서울행을 선택한 것도 마땅히 연습할 곳도 없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원정길은 원정길이다. 스프링캠프를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선수들은 귀국과 함께 다시 긴 원정길에 오르면서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디션 관리’가 본 무대를 앞둔 KIA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린 골 넣는 콤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니타드의 안토니오 발렌시아(오른쪽)가 18일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웨인 루니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선두 굳히기**

**울버햄튼 5-0 대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위를 달리는 맨체스터 유니타드(이하 맨유)가 19위인 울버햄튼을 대파하고 선두 자리를 굳혔다.

맨유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치른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2011~2012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5-0 완승을 거뒀다.

최근 5연승을 달린 맨유는 이날 승리로 승점 70점(22승4무3패)을 쌓아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66점·21승3무4패)에 4점 차로 앞선 선두를 유지했다.

첫 골은 전반 20분께 터져나왔다.

‘해결사’ 루니가 길게 올려준 코너킥을 캐릭이 발로 떨어뜨리자 조니 에반스가 골대 앞 왼쪽 5.5m 지점에서 발리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에는 치차리토가 10분과 15분에 헤딩골을 포함한 2골을 잇따라 넣어 맨유의 5-0 대승을 완성했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